

# 작은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의사들

## 드라마 <힘하게> 속 수의사의 삶

글 편집실



봉예분(한지민)은 청정 농촌 마을 '무진'에서 외할아버지가 하던 동물병원을 물려받아 이어오고 있는 수의사다. 지역이 재개발되어 병원이 대박 날 것을 기대했으나 무산되고, 시골에서 '소 돼지 전문입니다'라고 적힌 병원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신세다.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이 임박한 소 원정 진료를 나간 그에게 유성우가 떨어지며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생긴다. 동물이나 사람의 엉덩이를 접촉하면 그들의 과거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분은 초능력을 이용해 그동안 눈치채기 힘들었던 동물들의 고민을 알아내며 주변 동물병원의 손님들을 모두 끌어모은다. 하지만 드라마에서처럼 초능력이 없는 현실에서 수의사는 각종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상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보호자 응대와 각종 민원,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반복적인 안락사를 경험하는 것도 과도한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다. 이들의 스트레스는 윤리적 딜레마와도 연결된다. 동물과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지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보험이 없어 진료비가 비싸다 보니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거나 죽을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보호자도 있다. 그때마다 수의사들은 금전적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에 동시에 직면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다.

### 서서히 건강을 쪼먹는 방사선

반려인 천만 시대, 치료받아야 할 동물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수의사들의 작업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피폭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동물이 움직일 수 있다 보니 수의사나 수의테크니션(동물보건사)들이 동물을 직접 보정하고, 재촬영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피폭의 단위는 mSv(밀리시버트)로, 보통 사람은 1년에 2~3mSv 정도 노출이 된다. 만약 피폭되면 불임, 유산, 태아 기형, 심막염, 혈관염, 백혈병 등의 각종 증상이 발생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 방사선 종사자들의 피폭 선량한도는 유효기간 기준 연간 50mSv 이하, 5년간 누적선량 100mSv 이하다. 피폭량 250mSv부터 백혈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4,000mSv부터는 30일 이내에 피폭자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사 장비에서는 샷당 0.005mSv에서 0.1mSv 정도의 방사선이 누출된다. 단순히 1회 노출량으로만 본다면 낮은 수치이지만, 이를 반복하다 보면 누적 방사선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때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는 것이 바로 납복인데, 보정 시 흘러내리더라도 동물을 붙잡고 있느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방법을 쓰더라도 동물이 마취를 견딜 수 있는지 상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의사와 보호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수의사들은 방사선뿐만 아니라 약품의 영향도 받는다. 동물들의 몸집이 작다 보니 약을 갈아서 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가루가 날리며 노출되기도 한다. 감염 또한 문제다. 치과 시술 과정에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10kg 넘는 동물들을 번쩍 들어 올리느라 근골격계질환도 흔하게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량도 점점 가중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의사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동물병원협회는 수의사의 이직률이 25%라고 밝혔다. 무려 4명 중 1명꼴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튼튼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위험에 노출된 수의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